스승의 날 교수·학생 간에 편지를…

교수가 제자에게

응어리 누르며 하고픈 말

제자들 美에 못미치는 꽃발

훈에게

"…새 일터로 가는중…"이라며 기차안에서 써보낸 너의 지난번 편지 이후, 꽤 오랫동안 소식이 없구나. 자주 오던 너의 글발이 뚝 끊겨서는 길다란 쉼을 하고 있으니, 은득 은득 까닭없이 불안하다만, 니가 그리도 원하던 새 일에 빠져서 눈코 뜰 사이 없어 그러리라는 간절한 바램으로 그 불안을 달랜다. 객지에서 훈이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나를 괴롭힌다. 잔잔하게 일어오르는 따가운 응어리를 누르며 훈에게 말하고 싶구나, "부디 너희는 나같은 작은 사람 되지 말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있게 뛰어오르라"고.

황 춘 섭 〈가정대교수·의상학〉

여기? 응, 다 잘 있어. 학과 교수님들께서는 모두 평안 하시고, 후배들도 경희 개교기념 축제행사중의 하나인 스타일화 전시회 준비하며 바쁘게 뛰어 다니고, 교정의 봄 꽃발도 여전하지. 지금도 겹벚꽃이 한창이야. 그런데 말이다 훈아, 그리도 예리번 빛이 한봄이건만 빛이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고 다르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올해 벚꽃은 유난히도 눈부셨어. 그야말로 대단했었는데, 글쎄 그 느낌이 올해 처음으로 보는것 같더라니까?! 이러하니, 어찌 같은 날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겠나 싶어, 새삼 하루 하루의 귀함에 숙연해진다.

이번 신입생들과도 전공 기초과목을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녀석들 숙제 작업에 찌들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눈치야. 녀석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신입생'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어떤 녀석은 벌써부터 알고 있는듯 하지만, 어떤 녀석은 이해서 늘 젊었을 때에는 몰라서 안하게 되고 나이 들어서는 알게 되어도 남은 시간과 근력이 모자라 못다 하게 된다는 옛 어른들 말씀이 우리들 앞에 무서운 때로 남아 있나봐.

아무튼 교정의 꽃발이 아무리 고와도 너희 후배들 모습만큼 싱그럽고 아름답지는 못한 것 같다. 응? 내가 '에비고양이'를 닮아서 그렇다고? 아니야! 나에게는 용이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용을 태우고 다니는 구름이 더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구름을 움직이는 바람이 또 더 멋있게 여겨지지도 않으며, 바람을 막는 벽의 힘이 전혀 부럽지 않을 뿐더러, 벽을 뚫는 쥐의 위력도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세끼고양이'라고 이름 붙여주기에 너무 아깝도록 이쁘서, 더 멋있어 보이는게 있을 때마다 그것따라 이름을 바꾸어 주어가며 재 새끼만 이뻐하는 그 에비 고양이와는 조금 달라요 글쎄!

여하간 훈이 니가 와서 녀석들과 어우러져 주면 금상첨화일것만 같은 오늘이다. 보고싶다. 안녕.

제자가 교수에게

박 숙 희 〈법학·2〉

선생님께

"Why?"

칠판 한가운데 커다랗게 씌어진 영어단어 하나, 잠깐의 침묵, 그리고 어이없는 듯한 웃음소리, 낮은 웅성거림.

2학년 첫 강의시간이었습니다. 1학년, 혼돈의 시기를 지나 이제 막 질서의 세계로 발 들여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렸던 따가운 고민과 질문의 햇살을 피해 전공공부라는 그늘 속에서 폭폭 숨어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Why?"라니.

"한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줄까?" 선생님이 해 주신 그 이야기는-평석한 두뇌를 가진 한 소년이 주위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법시험을 치르고,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그 지위를 이용해 한 여인의 육체를 탐닉하고, 또 그로 인해 판사직을 그만 두었다는 이야기-결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에 화가 났을 뿐 전혀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에게 판사가 되라고 한 사람은 많았지. 하지만 아무도 그가 왜 판사가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 왜 판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그저 주위의 말들에 밀려 그는 판사의 길을 택한거야."

"Why?" 왜 씌어졌는지 우습기만 하던 칠판 위의 영어단어가 도전하듯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막 고개를 돌려버리려던 순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과연 내가 왜 그것을 하려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한번 더 칠판 위의 그 영어단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따가운, 그러나 밝은 햇살 아래로.

몇번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늘로, 따가운 햇살을 피해 그늘로, 그러나 그 그늘 역시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깜깜한 그런 그늘이었을 뿐. 그런데도 어떤 교수님은 그러시더군요. "4년만 참아라, 그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고등학생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왜 대학을 가야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3년뒤의 기약할 수 없는 보상(?)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대입준비를 하던 교교시절이었죠. 그렇게 들어온 대학의 햇살은 정말이지 너무나 따가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의 보상(?)의 햇살은 더 따가우리라는 걸, 어쩌면 그때의 보상은 햇살이 아닌 암흑일지도 모른다는 걸.

선생님, 오늘도 저는 햇살아래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옛날보다 훨씬 더 따가운 햇살아래에 서 있습니다. "Why?"를 되뇌이며… 그러나 이제 햇살 아래와 그늘 아래가 다르지 않음을, 그늘을 만드는 나무 역시 햇살아래 서 있음을 아는 지금은 그 햇살이 괴롭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햇살 아래에 저는 오늘도 또 서 있습니다. "Why?"를 되뇌이며…

지울 수 없는 의문들

햇살아래 오늘도 부끄럽게 서

독자수기 … 교생 실습을 다녀와서

가르치면서 배우는 뜻깊은 시간

4월6일부터 5월1일까지 교육실습 기간이었다. 선생님들로부터 늘 배우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은 비록 4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다.

美를 나누는 수업시간

3년동안 대학에서 배운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을 되새기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실습에 임했다. 교생이란 신분이 교사앞에서는 학생이요 학생들앞에서는 교사인 위치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동시에 배우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것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미술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하는 수업방식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美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학생들이 표현하는 때문지 않은 표현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격언처럼 나의 무죽한 한점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배움의 시간'이었다.

내가 간 곳은 중학교였는데 중학생들의 정신연령은 그 중의 폭이 매우 커서 성인생각처럼 도저히 지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해보니 이론으로 배운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엽학생과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했다. 한 학급에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를 높이 세워야만 했다.

학생들 앞에 선다는 중압감에서 인지 교생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었고, 학생들은 현 유행감각에 뒤쳐져 보이는 그런 차림이 못마땅한 듯 옷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곤란했지만 그들이 3백65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니는걸 생각하니 대리만족을 하려는 학생들의 심리도 이해할 수 있었다.

교육적 사명감 앞서야

교육은 '가르치고 기른다'라는 뜻이지만 가르치는 일 이외의 사무적인 일을 교사들이 너무 많이 담당하고 있어 기르는 측면이 소홀히 되고 있는 듯 했다. 오후 늦게까지 학교라는 울타리에 '사직의 전달'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재능을 발전해주며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교사가 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사사로운 이익에 급급하기보다 '교육적 사명감'이 앞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실습기간은 교사의 자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범대학생이든 교직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든 간에 우리는 막연히 교사가 되고 싶다는 동경만 해 왔을뿐 교사의 올바른 입장이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생각지 못했다.

나의 중학생시절 교생선생님들의 그 파릇한은 꽤 오래갔던 걸로 기억된다. 학생들이 교생선생님들에게 현직교사에게서 받지못한 사랑을 기대하는것 같다.

교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흥기분이 있다. 한달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아이들에게 정을 주고 4월에 왔던 벚꽃처럼 훌쩍 가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 흘가분함이 학생들에 대한 미련을 넘어서지는 못하나 보다. 그 때문지 않은 순수함과의 대화는 학생들을 대할때 만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닐까?

학생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주 흔한 단어이지만 꽤 힘들고 어려운 것일에는 틀림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 교사의 길에 소질이 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무모하리 만큼 무조건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김 상 아 〈미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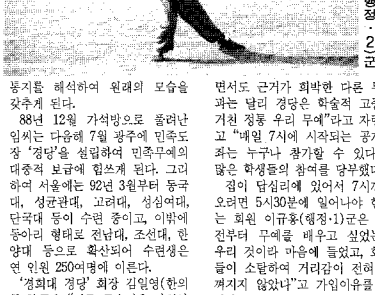
24반 무예 '경당' 소개

4백년 역사 지닌 정통민족무예 "매일 7시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요즈음 우리는 매일 아침 7시, 대운동장에서 20여명의 무사들을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너댓명의 여자 무사도 눈에 띈다. 목검을 들고서 기합을 내뿜는 이들은 '경희대 경당' 회원들이다.

'24반 무예'의 기원은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란 중이던 1596년 한교가 '무예제보'를 만들어 군사들을 훈련시켰는데 이때 도입, 정착된 무예가 곤방, 등패 등의 6기(技)였다. 영조에 이르러 사도 세자가 무예제보를 기초로 기존의 6기와 새로운 무예 12기를 합쳐 18반 무예로 확대한다. 정조때의 실학자 이덕무 등이 다시 마상술 6기를 추가하여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는데 이 책에 실려있는 무예가 바로 24반 무예이다.

24반 무예가 창설 당시부터 발전만 해온 것은 아니다. 신식무기인 총에 밀려 의병항쟁 이후 맥을 잇지 못하기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천대받았다. 24반 무예의 완전복원은 교도소에서 이루어졌다. 유신시절 통혁당 재건 사건과 남민전 사건으로 법에도 없는 두번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임동규씨가 1·7평의 감방 안에서 무예도보통지를 해석하여 원래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24반 무예를 시범보이는 문종기(행정·2)군

88년 12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임씨는 다음해 7월 광주에 민족도장 '경당'을 설립하여 민족무예의 대중적 보급에 힘쓰게 된다. 그리하여 서울에는 92년 3월부터 동국대, 성균관대, 고려대, 성심여대, 단국대 등이 수련 중이고, 이밖에 동아리 형태로 전남대, 조선대, 한양대 등으로 확산되어 수련생은 연 인원 250여명에 이른다.

'경희대 경당' 회장 김일영(한의학·2)군은 "민족 무술인을 자처하면서도 근거가 희박한 다른 무술과는 달리 경당은 학술적 고증을 거친 정통 우리 무예"라고 자랑하고 "매일 7시에 시작되는 공개강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점이 답심리에 있어서 7시까지 오려면 5시30분에 일어나야 한다는 회원 이규홍(행정·1)군은 "이전부터 무예를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 것이라 마음에 들었고, 회원들이 소탈하여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가입이유를 밝혔다.

〈김중석 記者〉

□ 문화단신

가브라스 감독 '계엄령'해제 축음 1주일 현장감 실감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계엄령'이 20년의 상영금지에서 해제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계엄령은 1970년 우루과이 '랜마트리언' 납치사건을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 우루과이 민족해방전선 '투파마로스'는 실명으로 소개된다.

가브라스 감독은 마트리언이 해방전선에 납치되어 죽기까지 1주일 동안을 사건과정에 따라 명시하여 기록적 효과를 높이고, 플래쉬 백의 반복 사용, 수사의 긴박감과 부감 쇼트를 이용하여 심문을 하고 심문을 받는 당사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20년 동안 금지된 이 2시간짜리 필름을 통해서 독재의 군사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의 신식민주의 정책에 희생당한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숙양산박 '인어전설'공연 텐트연극, 무대기술 돋보여

재일교포 3세가 주축인 극단 '신숙양산박'이 극단 '띠오페페'의 초청으로 오는 14일부터 6일간(월요일쉼) 여의도 선착장 옆 고수부지에서 '인어전설'을 공연한다. (연출 김수진)

바다를 건너 풍족한 삶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인어전설은 공연방식에 있어 특이한 점이 있다. 즉 이 작품은 텐트에서 이루어지는 텐트연극이며 무대 가운데 풀이 있고, 좌우에서 4톤의 물이 실제로 뿜어진다. 일본에서 들여온 무대장비만 20톤으로 방대한 스케일과 뛰어난 무대기술로 매스컴의 극찬을 받았다.

영자신문, 영어 콘테스트 개최 수필, 독서 감상문 자유주제

영자 신문 The University Life는 창간 35주년을 기념하여 제11회 전국 'English Essay and Book Review Contest'를 개최한다.

모집부문은 수필과 독서 감상문 두 부분이며 주제는 자유선택이다. 경연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5일까지 The University Life 편집실에 타이핑된 16절지 원고(25행) 3~5매를 제출하면 된다.

5월15일은 '스승의 날'

교수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시다

다함께 "야호~"하는 소리에 모든 산봉우리가 놀랍니다

지난해 교수·학생 수락산 등반대회

인생과 학문의 산에서
외로운 등반을 하셨던 교수님들.
열정으로만 방황하던 학생들
그간 힘에 겨웠던 발걸음들이 모여
이제 산정에서 다 함께 소리지릅니다.
이 함성에 존경과 신뢰의 믿음이
서서히 메아리쳐 옵니다.

대 학 주 보 사